

1.(가).(나)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발문 분석 : 그림 또는 글로써 지역에 관한 특징이 제시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문제 분석

쉬운 (나)먼저 봅시다. 그림만 보고도 단박에 독도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굳이 근거를 따지자면 섬의 특징에 관한 설명도 그렇고, 경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최동단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¹⁾

(가)를 봅시다. 생김새로 봐선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제주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된 특징들에 해당하는 것은 마라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북위 33도 부근이라는 것인데요, 즉 최남단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보기 분석

- ㄱ. 해는 동쪽에서 가장 빨리 쬐니다. 해를 가장 빨리 보려면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어야겠죠? (X)
 - ㄴ. 두 섬 다 사람이 거주합니다. (X)
 - ㄷ. 두 섬 모두 화산섬입니다. (O)
 - ㄹ. 두 섬 모두 직선기선을 적용합니다.²⁾ (O)
- ∴ 정답은 ㄷ, ㄹ 입니다

1) 우리나라 위도는 북위33~43도, 경도는 동경 124~132도입니다.

2) 직선기선은 복잡한 해안선에 주로 쓰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황해,남해안에 사용하고요, 예외적으로 대한해협은 통행의 편의를 위해 직선기선부터 3해리까지만 영해로 설정하였습니다.

2. 지도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문 분석 : 지도가 나오고 해당 지형의 특징에 관해 묻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늘 나오는 유형입니다.

- 문제 분석

해안지형입니다. 바다 앞에 있잖아요. 개념서/교과서에서 배운 해안지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다와 맞닿은 부분에 울퉁불퉁한 표시는 암석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암석해안이네요.

A : 암석이 바다 한가운데 있네요. 시스택입니다.

B : 등고선의 간격이 넓네요. 그리 경사진 곳은 아니라는 것인데 지면은 아니고 높이가 꽤 있습니다. 해안단구입니다.

C : 여기도 경사지지는 않았는데 높이가 좀 있어요. 해안단구예요. 암석해안에서 바다와 가까운데 높이가 좀 있고 평평하다면 거의 해안단구입니다. 해안지형중에 그런 특징을 가진 지형이 해안단구 밖에 없어요.

D : 우선 동그라미친 부분은 혼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암석이니까 시스택 같나요? 옆으로 연결된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육지에서 점이 찍혀있다면 모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³⁾ 모래가 이어져 있네요. 섬과 바다가 사주로 이어진 육계도입니다.

E : 바다 바로 앞에 모래가 깔려 있으니 사빈입니다. 좀 뒤에 있다 싶으면 사구예요. 해수욕장에서 파라솔,돛자리 깔고 앉는 부분이 사빈입니다.

∴ 정답은 2번입니다. 사구는 현재 없네요. 쉽게 생각하면, B를 표시한 부분이 암석으로 된 해안 절벽이기 때문에 모래로 된 지형같은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3) 바다에 점이 찍혀있다면 갯벌입니다!

3. 다음 자료는 충청 지방의 시 기별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가), (나)는 1월 또는 7월)

발문 분석 : 풍향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문제의 그림은 자주 나온 그림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로 나오지만, 다른 자료가 나와도 풍향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료의 표면적인 해석 또는 바람과 관련된 교과 내용을 물어볼 것임을 생각하고 풀이해야 합니다. 주로 기후 파트겠지요?

마지막으로 1월과 7월에 주목합니다. 겨울 아니면 여름 시기에 부는 바람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풀이해 봅시다.

- 문제 분석

(가)를 봅시다. 제일 뚜렷하게 드러나는 서산을 보니 남서쪽이네요.⁴⁾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면? 7월입니다. 그런데 서산 빼고는 경향성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걸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네 지역 모두 1월의 바람 아니면 7월 바람, 즉 같은 시기에 부는 바람이네요. 충청지방에서 전체적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따로놓지 않습니다. 서산으로 알아차렸으면 된겁니다. 그냥 빨리 풀려면, (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는 1월임을 이미 알기 때문에 선지로 가도 됩니다.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대전과 청주를 보니 확실히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므로 겨울, 1월입니다.

*여름과 겨울의 바람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정확히 북서,북동,남서,남동 따지지 마시고 남 북 방향만 잘 따지시면 됩니다.

4) 남서풍이면 남서쪽에서 “불어오는”바람임에 주의합시다!

- 선지 분석

1. 둘다 풍향의 경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헷갈리시나요? 계속 선 그래프만 보면서 해메는 분들 있을겁니다. 그림 옆에 무풍 상태가 뭐라고 표기되어 있나요? 무풍 표시는 없는게 아니라 원 중심에서 선을 그은 후에 무풍의 비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무풍 비율이 각각 8.5%, 20.9%라고 딱하니 써 놓았습니다.

2. 편중성이 높습니다. 그림을 딱 보면 차이가 나네요. (X)

3. 온도는 추워서 생긴겁니다. 7월의 더운 바람 때문은 아닙니다. (X)

4. 집중호우는 여름에 일어납니다. (가)에서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X)

5. 맞습니다. 겨울엔 거의 북쪽(추운 대륙)에서 불어오고, 여름엔 거의 남쪽(따뜻한 바다)에서 불어옵니다. (O)

∴ 정답은 5번입니다.

4. A~E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발문 분석 : 지역에 관한 설명이니 지도에 있는 지역명을 아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문제 분석

A : 파주, B : 과천, C : 안산, D : 평택, E : 여주입니다.

- 선지 분석

1,3,4,5번 모두 맞고 2번만 틀렸습니다. B는 과천으로 제2정부청사가 있는 곳입니다.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입니다.

5. (가), (나) 지형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발문 분석 : 공통점이 많아보여야 틀릴 것 아닙니까. 주로 비슷한 곳에 위치한 지형을 낼 것입니다. 하천지형끼리, 해안지형끼리 이런 식으로요.

- 문제 분석

(가)부분은 하천 주변이므로 하천 지형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범주를 좁혀갑니다. 등고선을 보니 높이가 주변보다 낮아요. 그리고 못 볼까봐 친절하게 점선으로 모양을 잘 그려놨어요. 문제를 좀 봤다면 모양에서 구하도라고 바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천이 흐르던 곳이라 주변보다 높이가 낮습니다. 하천의 줄기도 끊겨있네요.

- 선지 분석

1.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입니다.
2. (나)는 그렇다 치고 (가)는 물이 없습니다...
3. 맞습니다 (O)
4. 흑방 침식입니다. 하방침식은 감입곡류천이 대표적입니다.
5. 이런거 고르지 마세요

6. 지도의 ㄱ~ㄷ 지역에 해당하는 기후 특성을 그래프의 A~C에서 고른 것은?

- 발문 분석 : ㄱ, ㄴ, ㄷ에 대한 지도 나오고 각 지역기후 특성에 관한 그래프 나오겠네요.

- 문제 분석

사실 지역 이름을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여기선 각각의 위치에서의 기후 특성을 파악하는게 더 중요하므로 지역 이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지역명은 알수록 좋습니다. 그 지역명과 기후특성이 바로 연관지어서 떠올릴 수 있거든요. ㄱ이 울릉도인데 울릉도는 기후가 남다르잖아요. 울릉도는 연강수량이 가장 고르기 때문에 하계 강수 집중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한 겨울 기온이 가장 따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기온은 모두들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연교차가 가장 작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ㄱ은 A입니다. ㄴ과 ㄷ을 봐야 하는데 기후 지표가 아

주 비슷합니다. 둘이 그나마 다른 것이 최한월 기온입니다. 이걸로 가르면 됩니다. ㄷ이 더 저위도에 있으므로 겨울도 따뜻하겠죠. 따라서 ㄴ은 C고 ㄷ은 B입니다.

7. 그래프는 (가), (나) 두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이다. 옳은 것은? ((가), (나)는 시/군 규모)

- 발문 분석 : 두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면 보통 대비되는 것을 놓습니다. 도시랑 농촌이겠죠. 시/군 규모라잖아요. 〇〇시(도시)와 〇〇군(농촌)을 놓고 비교할 겁니다.

- 문제 분석

(가)는 노인분들이 가장 많고 청장년층은 적습니다. 농촌이에요

(나)는 청장년층이 훨씬 많으므로 도시입니다.

- 선지 분석

1. 중위 연령은 모든 사람을 나이순으로 정렬 후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노인분들이 많을수록 중위연령이 높아집니다. (가)의 중위연령이 더 높겠지요. (X)
2. 총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노년을 청장년으로 나눔)와 유소년(유소년을 청장년으로 나눔) 부양비의 합입니다. 즉 청장년층의 비율이 커질수록 부양비가 줄어듭니다. 돈 벌 사람이 많으니 부담이 적잖아요. (가)의 총부양비가 더 높습니다. (X)
3. 성비는 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입니다. 어디에 남자가 더 많을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남성이 더 많은 쪽은 (나)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성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엔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의 청장년 남성들이 돈을 벌러 대부분 도시로 떠난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X)
4. 노령화 지수는 노년 인구를 유소년 인구로 나누면 됩니다. (가)가 더 큼니다. (X)
5. 생산 가능 인구는 청장년층입니다. 정답입니다. (O)

8. 다음은 답사 후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답사경로를 지도의 A~E에서 고른 것은?

- 발문 분석 : 보고서엔 지역별 특징이 써 있겠네요. 그것을 보고 지역명과 위치를 알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 문제 분석

1일차를 보니 '바닷물의 흐름'이 용한 발전이라네요. 조류 발전입니다. 이 발전소는 진도에만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조력발전소는 안산쪽에 있습니다. 답이 E인건 이미 알지만 더 분석해 봅시다. 2일차에 고원지대의 풍력발전소를 갔습니다. 이걸 대관령 쪽이라고 헛갈릴 수 있는데 대관령만 고원에서 풍력 발전을 하는게 아닙니다. 진안 고원 부근도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무주 부근엔 스키장이 많습니다.) 3일차에 원자력 발전소를 갔습니다. B는 아니겠네요.⁵⁾ 결국 답은 E입니다.

9. 학생의 발표 내용이 옳은 것은?

- 문제 분석

진짜 별거 없습니다. 연평균 기온 변화 이런 거 나오면요, 그냥 지구온난화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큼니다.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면 됩니다. 더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자료해석이 어려운 문제도 아닐 뿐더러 자료해석이 아니라 내용정리만으로도 2,4번선지 빼고는 전부 풀 수 있습니다.

- 선지 분석

1. 더워지면 결빙일수가 줄어듭니다. (X)
2. 더 더우니까 위도가 낮겠죠. (X)
3. 더 추운곳이니까 꽃이 늦게 피겠죠 (X)
4. 1980년 온도와 2010년 온도만 보세요. 정답입니다. (O)
5. 약 봐도 들쭉날쭉합니다. (X)

5) 원자력발전소의 위치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울진, 경주, 부산, 영광 4곳입니다.

10. (가), (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발문 분석 : '시기' 나오면 사실 나올게 맞게 없습니다. 역사 과목도 아니고 지리에서 배운 것중에 시기라고는 지리교과서 앞쪽 단원에 있는 한반도의 형성과 지질 구조 파트에서 배운 지질시대와 빙기-후빙기의 기후변화가 전부거든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밑의 문제 자체가 너무 간단한 자료라.. ㅎㅎ 어느 문제든 어떤 태도나 내용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 분석

(가)는 빙기, (나)는 후빙기입니다. 빙기 다음에 후빙기가 온 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어요. 빙기가 춥고 후빙기가 따뜻하다고만 알아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별 특징을 알고 있어야 선지를 걸러낼 수 있겠죠?

- 선지 분석

1. 빙기에도 울릉도는 동해와 연결되지 않았 습니다. 빙기에 해수면이 많이 낮아져서 드러난 땅이 많다고 생각해 헛갈릴 수 있는데요, 울릉도 독도쪽은 아닙니다. 거긴 진짜 깊은 곳이에요. 동해는 황해보다 깊죠? 그래서 동해쪽은 황해에 비해 땅이 덜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2. 맞죠. 물이 없을텐 거기 다 산이었어요. 물이 차면서 봉오리만 남으면서 섬도 많이 생기고 해안선도 복잡해졌습니다. 원뿔 여러 개를 줄세워놓고 물을 점점 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빙기에 동해바다의 면적은 더 작았어요. 빙기엔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4. 해발고도는 해수면부터 측정한 고도입니다. 해수면이 낮을수록 해발고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수면이 더 낮은 빙기에

는 해발고도가 높았겠네요.

5. 풍화 하면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있는데 돌을 헛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풍화는 힘에 의해 암석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주로 바위의 틈에 들어간 물이 얼어 바위가 쪼개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화학적 풍화는 말 그대로 화학적 변화에 의해 암석이 녹는 것입니다. 석회암이 물에 녹아 석회 동굴 등이 만들어진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1. 지리 정보 수집 방법 중 한 유형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문제 분석 : 지리 정보 수집 방법 중에 항공기나 위성 등을 통해 지리 정보를 획득하는 원격 탐사의 방법입니다. 내용이 책에 있던 하니까 쓰는데 이름 몰라도 거의 풀립니다. 지리정보 단원은 비중이 작은 단원이지만 기습 출제할 수 있으니 한번쯤은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 선지 분석

ㄱ. 속성 정보란 장소가 갖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헛갈릴까 봐 예를 들자면 “○○국은 면적이 ~며 인구가 ~명이고 ~기후의 세계적 공업 국가이다.” 등이 있습니다. (X)

ㄴ. 위성이나 항공기는 기술력과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X)

ㄷ. 예를 들어 험준한 산지라든가 아주 추운 지역이라든가, 간헐천이나 화산이라든가 등등 저 멀리서 위에서 찍어서 알 수 있으니 맞는 말입니다. (O)

ㄹ. 위성사진 생각해보시면 되죠. 일정한 주기로 지구 주변을 돌면서 같은 지역 사진을 찍습니다.(O)

12. 그래프는 교통수단별 국내 수송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다. A~C 교통수단의 상대적 특성을 포함한 것으로 옳은 것은?(각각은 도로,철도+지하철, 해운 중 하나)

- 발문 분석 : 늘 등장하지만 그래프나 표가 괜히 문제를 어려워 보이게 하고 있네요. 각 특징별로 교통수단의 순서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용정리가 확실해야 자료에서 추론하거나 해매지 않습니다.

- 문제 분석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 화물 수송 분담률을 물어보고 있네요. 여객은 도로-지하철-철도-비행기-배 순서이고, 화물은 도로-배-철도-비행기 순서라는 것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일 경우 순서가 달라지므로 꼭 내용 숙지하셔야 합니다. 여튼 위 순서에 따르면 A는 도로, B는 철도, C는 배입니다.

(가)~(마)를 봅시다. 개념을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가)는 C-B-A, (나)~(라)는 A-C-B, (마)는 B-A-C 의 순서입니다. 옳은 것은 (가)입니다.

13.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 문제 분석 : 남한은 지명을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지만 북한은 외워야 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한에 비하면 매우 적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 갑 : 나선 경제특구입니다. ㄴ의 위치에 있습니다.
- 을 : 신의주 특별행정구입니다. ㄴ의 위치에 있습니다.
- 병 : 개성 공업지구입니다. 개성공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ㄷ의 위치에 있습니다.(o)
- 정 : 금강산 관광 지구입니다. ㄹ의 위치에 있습니다.(o)

14. 그래프는 7대 도시의 제조업체 규모별 현황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발문 분석 : 우선 '7대 도시'가 나옵니다. 7) 6광역시+서울특별시겠죠? 물론 밑 그래프에도 나오지만요. 그다음은 '제조업체 규모별 현황'인데요, 공업 파트의 개념을 활용한 문제군요.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문제 분석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두가지의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의 해석을 통한 문제풀이와 이미 배운 개념정리를 통한 문제풀이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이나 통계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풀이가 모두 가능하겠

6) 참고로 금강산 조금 위쪽은 원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라 기후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지역입니다.

7) 자꾸 발문에서부터 정보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필요한 개념을 예상하고 그 범주를 좁혀 나가는 것이 시간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꾸 의식하시고 연습하셔서 바로 알 수 있게끔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죠? 혼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내용정리는 맞는게 맞는 것이고 틀린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을 통한 풀이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프 해석을 통한 풀이 : 시간이 있다면 확실하게 해석 해보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개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래프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속에 답이 있습니다.

1.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 = $\frac{\text{종사자수}}{\text{사업체수}}$ 입니다. 따라서 1번 그래프의 흰 막대와 2번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되고 결론은 광주가 더 큼니다. (X)
2. 이 선지는 2번 그래프와 3번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두운 색 막대임에 주의합시다.(X)
3. 중소기업종사자 1인당 출하액 = $\frac{\text{중소기업출하액}}{\text{중소기업종사자수}}$ 입니다. 2번과 3번 그래프의 어두운 막대를 이용해 계산하셔도 되지만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울산이 종사자가 적고 출하액이 높으니까 큰 출하액을 작은 종사자수로 나눈 셈이거든요. 1인당 출하액은 울산이 더 크겠네요.(X)
4. 대기업이 많다니까 서울같나요?아닙니다. 제조업은 다르거든요. 1번 그래프를 이용해 야겠네요. 대기업 수=사업체수x대기업비중(%) 이겠죠? 서울 사업체 수가 45개라 치면 대기업비중이 0.3%가량 되고, 울산은 사업체가 대략 15개, 대기업비중은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울산은 사업체수는 적는데 대기업 비중이 높으므로 찾기 쉬우셨을 것 같네요.(X)
5. 그래프를 보고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2번 그래프와 3번 그래프의 밝은 색 막대를 잘 비교해 보시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O)

15. 호남지방 3개 도시의 제조업 업종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 발문 분석 : ‘호남지방 3개 도시의 제조업’? 대략 감이 오셔야죠. 유명한 공업도시들 대략 추려보면 여수, 순천, 광주, 광양 등이 있겠죠? 자동차나, 석유공업, 제철 등의 산업들이 나오겠네요.

- 문제 분석

역시나 여수 광양 광주 세 도시가 나오네요. 내용을 알아야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수는 석유공업이 메인이죠? 광양은 제철이 메인, 광주는 자동차가 메인입니다. 그랬더니 허무하게도 A는 석유공업(여기선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정유+석유화학을 합쳐 부르겠습니다), B는 제철, C는 자동차로 빈칸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개념을 통해 선지를 골라 봅시다.

- 선지 분석

1. 석유는 조립하지 않아요. 조립형 공업은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X)
2. 출하액을 묻는데 주의합시다. 크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출하액이 따로 제시되어 있네요. 따라서 광양에서 B는 23조의 93% 정도가 출하액입니다. 여수와 광주도 출하액에 비중을 곱해 보면 윤이 좋게도 크기가 가장 큰 광양에서 출하액도 가장 크네요. (X)
3. 60~70년대는 경공업 중심이었습니다. 자본보다는 노동력 중심의 공업이었죠. 가발이나 신발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X)
4. 자동차는 철 가지고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O)
5. 석유공업은 오직 원유만 쓰기 때문에 전량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⁸⁾ 우리나라가

8) 참고로 울산에서 매년 극소량이 나오긴 합니다. 불

원래 자원이 부족해서 거의 수입이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다양한 재료가 쓰이죠. (유리나 고무나 가죽 천...등등) (X)

16. (가), (나) 지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문제 분석

사실 저도 (가)가 고씨굴인지 환선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원이 그런 이름을 기억하라고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쪽은 조선계/평안계 지층이 있는 쪽이고 동굴 내부에 종유석 등이 나타나므로 석회 동굴이란 겁니다. (나)도 이름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용암이 식으면서~ ‘기둥 모양의 절리’ 말 그대로 주상절리입니다. 이 두 지형, 석회동굴과 주상절리라는 정보만 가지고 선지로 갑니다.

- 선지 분석

1.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침식 분지입니다. 석회동굴은 카르스트 지형에서 석회암 틈새로 물이 새서, 즉 간단히 말해 석회암이 물에 녹은 것입니다. (X)
2. 공룡 발자국 하면 바로 경상계를 떠올려야죠. 경남 고성이 대표적입니다. (X)
3. 석회동굴의 기반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조선계 지층에 있는 석회석입니다. 반면 주상절리는 화산암으로써 신생대 3기/4기에 일어난 화산 활동에 의한 결과입니다. (O)
4. 카르스트지형은 수많은 틈새가 있었기에 물이 새서 잘 녹은 거겠죠. 배수가 탁월한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 때문에 돌리네를 발로 쓰기도 하죠.⁹⁾ 그리고 주상절리는 말 그대로 ‘절리’가 있어요. 갈라진 틈새가 있다고요. 배수가 좋습니다. 제주도는 현무암이 많죠? 그 둘은 구멍이 많습니다. 해서 물이 잘 빠진다

때서 라면 끓여먹으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9) 움발입니다.

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10) (X)

5. 경동성 요곡운동은 용기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한 지형은 용기 지형인데요, 고위 평탄면, 해/하안단구, 갑입곡류 하천 이 네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두 용기에 의한 지형입니다. (X)

17. 두 지역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상대적 특성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발문 분석 : 농업 파트의 개념을 묻는 문제군요. (나)의 특징을 묻는 것에 주의하시고, 추론이므로 표면적 내용을 바로 해석하는 문제는 아니겠네요. 어차피 개념만 알면 됩니다.

- 문제 분석

주 지역을 주고 상대적 특성을 물으니깐 당연히 두 지역은 대조적인 특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1번 그래프를 봅시다. 뚜렷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나)는 (가)에 비해 0.5헥타르 미만 경지가 많고 2.0헥타르이상 경지가 매우 적습니다. 자잘한 농사를 주로 하나 보네요. 식량작물은 주로 넓은 평야에서 넓은 경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도시 근처에서 농업을 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2번 그래프를 보면, 아 니나 다를까 (나)는 식량 작물을 (가)에 비해 적게 기릅니다. 그 대신 채소나 과일, 기타 작물이 많네요. 주로 시설들이 필요한 농업이죠. 시설 작물은 주로 도시 근처에서 재배합니다. 저는 이 둘을 간단하게 일반화하여 (가)는 원교 농업, (나)는 근교 농업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 선지 분석

10) 추가로 개념을 끌어 오자면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물을 구하기 위해 물이 나오는 해안가 용천대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물이 지하로 복류하거든요.

ㄱ. 도시에 가까울수록 지가가 비쌉니다. (O)

ㄴ. 원교농업 지역에서는 할 게 농사뿐이라 넓게 식량작물 농사만 짓지만, 근교농업 지역은 농사의 규모도 작고 겸업농가가 많습니다.(X)

ㄷ. 1번 그래프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작은 규모네요. (O)

ㄹ. 2번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소나 과일은 주로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해 시설 재배를 하죠. (X)

18. (중략) (ㄱ~ㄷ, A~C는 특별시,광역시,도 규모임.)

- 발문 분석 : 특별시,광역시,도 규모라는 것만 짚고 가면 됩니다.

- 문제 분석

문제에서 묻는 지역이 모두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특별시,광역시,도 규모면 서울,경기, 인천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벌써 후보가 정해 집니다. ㄱ,ㄴ,ㄷ와 a,b,c 기호끼리 끼워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두 이름을 맞추고 대응시키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우선 위 자료를 봅시다. 인구가동에 관한 자료인데요, 수도권 인구가동은 교외화 개념으로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서울이 과밀화되어 주변 위성도시 등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프와 같이 보면, ㄴ만 양쪽으로 인구가 유출되므로 서울입니다. 또한 인구유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인천,경기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ㄴ에서 ㄱ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ㄷ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양이 차이가 크네요. 서울로부터 더 인구유입이 많은 ㄷ이 바로 경기입니다. 왜냐? 우선 더 가깝고, 우리가 아는 다양한 위성도시들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래 자료를 봅시다. 늘 두드러진 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한 곳

은 대도시,고차중심지인 서울이죠.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수원,화성, 용인,파주 등지에서 각종 대기업의 IT제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19.(중략)

- 문제 분석

진짜 발문은 말풍선에 있었네요. (가)의 상대적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상주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잘하게 계산하기보다는 가,나 지역을 일반화시켜서 선지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지역을 비교해서 특성을 묻는 문제들은 모두 두 항목이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간인구지수, 상주인구, 이 둘이 나오는 단원은 도시 단원 중에서 기능 지역 파트입니다. 이걸 알고 계신다면 '기능지역 파트이므로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대비될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가)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습니다. 업무 지역입니다. (나)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도 낮고 상주인구까지 많네요. 주거 지역입니다.

- 선지 분석

1. 주간인구지수가 높으므로 주간 인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됩니다.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 아래 작게 써있는 공식은 없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표에 따라 주간인구를 비교해보면 (나)의 주간인구가 약 600여명 정도로 더 큼니다. (X)
2. 주거지역에 대한 특징입니다. (X)
3. 당연히 대기업들은 업무지역에 많겠죠. (O)
4. 학교는 주거지역에 많습니다. (X)
5. 유출인구가 많다는 것은 주간인구가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다들 그 지역을 떠나 어딘가로 출근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거지역의 특징입니다. (X)

20. 지역 개발의 공통적인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 발문 분석 : 지역 개발 단원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공통적 방향'이므로 복수의 자료에서 공통점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 문제 분석

중요한 부분만 써 보겠습니다

"~~을 공동으로 건립"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결성"

"7개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었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이것이겠네요. 답은 1번이네요.

이번 문제는 거의 국어문제였기 때문에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단원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면 상관없지만 만약을 대비해 책에서 1~4차 국토 개발 계획에 관한 특징을 찾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팁

-발문에서 정보를 캔다

-자료문제는 자료해석 뿐 아니라 개념을 동원하여 푼다

-보편적 상식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하다면 상식적 추론을 이용한다. 개념에 갇히지 않는다.

- 문제에서 어떤 항목을 비교할 때는 늘 대비적 특징이 존재함을 잊지 말자.

- 그래프가 주어지면 두드러지는 수치에 주목하자.